

길 위의 사제

시:김영직 사도요한 신부

곡:오주연 세실리아

Moderato (♩=92)

8 *G7* *C* *Em/B* *F/A*
 저 하늘 아래 저 산 너머에 당신이 걸으

14 *C* *Bdim* *G#dim7* *Am*
 신 그 길 따라 걸으니 나도 누군가의 길이 된

20 *Am/G* *Dm* *Gsus4* *G7* *C*
 다. 사랑의 길 구름을 이불 삼

26 *Em/B* *F* *C*
 아 별을 친구 삼아 홀로 걸으신 그 발자국 밟으

32 *Bdim* *G#dim7* *Am* *Am/G* *Dm* *G7*
 니 나도 누군가의 길이 된다. 축복 - 의

39 *Csus4* *C* *F* *C/E*
 길-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도

45 *F* *D7/F#* *G7* *Bb7*
 하느님과 홀로 있기가 소원입니다.

50 *Eb* *G/B* *Cm*
 하 늘 하 느 님 이 여 하 늘 하 느 님 이 여 당 신

54 *Ab* *Eb/G* *Fm* *Bb7* *Eb*
 자 비 를 잊 지 마 - 소 서. 하 늘 하 느 님 이

59 *G/Bb* *Cm* *Fm7*
 여 하 늘 하 느 님 이 여 당 신 눈 으 로

63 *Bb7* *To Coda* *Ab* *Eb* *C9* *Cmaj7*
 살 피 주 소 서.

68 *Am7* *C/G* *Fmaj7* *F6* *Gsus4* *G7* *D.S.%*
 구 름

74 *Coda* *Ab* *Eb* *Fm7* *Bb/F* *Eb*
 서. 사 랑 되 고 축 복 되 는 길.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박해로 고통받는 교회의
 든든한 목자로 세워 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교우들이 오로지 하느님 자비에 희망을 두고
 박해를 피해 산골 깊이 숨어 신앙을 지켜야 했던 시대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주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쉽 없이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전했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에게 시복 시성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에게 주셨던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한마음으로 복음을 살고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의 은총을 빌며
 그의 전구에 힘입어 (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